

심층분석보고서

수협-(경남)울산수협 일반관리계

2026.04.15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경남)울산수협 일반관리계

심층분석보고서: 수협 (경남)울산수협 일반관리계

제1장. 산업 분석: 10조 원 시대에 진입한 한국 수산업의 현주소

1-1. 한국 수산업의 시장 규모와 생산 구조

한국 수산업은 생산량 감소와 생산금액 증가라는 이중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수산물 총생산량은 **361만 톤**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으나, 생산금액은 **10조 9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 한국 수산업의 구조가 '많이 잡는 산업'에서 '비싸게 파는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양적 축소·질적 성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 변화, 양식업 고부가가치화, 수출 확대 전략, 그리고 수산물 소비의 프리미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연근해어업이 **84.1만 톤**(전년 대비 11.6% 감소)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일 연도의 이상치가 아니라 장기적 구조 하락의 연장선입니다. 1980년대 151만 톤에 달했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20년대 들어 91만 톤 수준으로 축소됐으며, 2024년은 이 하락 추세가 더욱 가팔라진 해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층적입니다. 풍랑특보 발효 건수가 2022년 734건에서 2024년 **929건**으로 급증해 출어 일수 자체가 줄었고, 고수온 현상으로 어군 분포가 북상·이동하면서 전통적 어장이 무너졌으며, 연료비 상승과 인력난이 겹쳐 영세 어업인의 출어 경제성이 악화됐습니다.

반면 해면양식업은 224.9만 톤으로 생산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생산금액이 **3조 7,118억 원**(전년 대비 16.6% 증가)을 기록해 양식의 부가가치가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김·미역 등 해조류와 굴·전복 등 패류의 가격 상승, 그리고 프리미엄 양식 품목(참돔·넙치 등)의 단가 개선이 주된 요인입니다. 원양어업도 47.9만 톤으로 16.7%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는 남태평양 참치 어획 호조와 남극해역 크릴 생산 확대가 기여한 결과입니다. 내수면어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지만 장어·항어 등 특수 품목에서 안정적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 수출 성과와 K-수산의 부상

수출 성과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2024년 수산물 수출은 **30.3억 달러**로 최초 30억 달러 벽을 돌파했고, 2025년에는 **33.3억 달러**(약 4조 8,957억 원)까지 확대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5년 수출액이 19.2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73% 이상 성장한 수치로, 이는 K-팝·K-푸드 열풍에 편승한 K-수산의 글로벌 브랜딩 성공을 보여줍니다.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2025년 **11.3억 달러**(전년 대비 13.7% 증가)를 달성해, 단일 수산물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 1억 달러대에 머물렀던 김 수출이 10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한 것은 조미김 제품의 혁신, 스낵·건강식 시장 침투, 그리고 한류 콘텐츠 노출 효과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18.6%), 중국(17.5%), 태국(13.6%), 미국(13.3%) 순이며, 특히 미국의 조미김 관세가 15%에서 0%로 면제되면서 대미 수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FTA 후속 협정 및 양국 통상 관계의 부산물로, 향후 수년간 김 수출의 추가 성장 여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FAO의 SOFIA(Status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4 보고서 기준, 한국은 글로벌 양식 생산 **7위**에 올라 있으며 세계 해조류 생산의 약 5%를 차지합니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연간 약 **63.5kg**으로, OECD 평균(24.7kg)의 2.5배를 넘어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최상위 그룹에 위치합니다. 이 수치는 수산업이 한국 식문화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을 보여주며, 국내 시장만으로도 안정적 수요 기반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수협의 유통·위판 기능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근거가 되며, 지역수협 경제사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경남)울산수협 일반관리계

업의 존재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토대입니다.

1-3. 기후변화가 만드는 어종 대전환

수산업을 관통하는 첫 번째 메가트렌드는 기후변화입니다. 국립수산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968~2024년 한국 연근해 표층수온은 **1.58°C** 상승했으며, 이는 세계 평균(0.7°C)의 2배를 넘습니다. 특히 동해는 **2.04°C** 상승으로 가장 큰 변화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어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파괴적 변화입니다. 전통 어종인 오징어(-42.1%), 갈치(-26.6%), 꽃게(-23.3%)가 급감하고, 방어·전갱이·삼치 등 난류성 어종이 부상·증가하는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 오징어의 실종은 상징적 사건입니다. 동해안 대표 어종이던 오징어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울릉도·속초·목호 등 전통 오징어 산지의 어업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반대로 과거 남해 어종이던 방어·참치가 동해에서 대량 어획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 연근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과거 오징어·명태 중심이던 어획 구조가 방어·전갱이·삼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수협의 위판장 품목 구성과 종매인 네트워크, 냉동·가공 시설의 운영 방식까지 재설계를 요구하는 변화입니다.

양식업 피해도 심각합니다. 2024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피해액은 **1,430억 원**으로 통계 집계 시작(2012년)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넙치·조피볼락 등 양식 어류가 수온 상승에 취약해 대량 폐사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내고온성 품종 개발, 심해 양식장 이전, 순환여과식 양식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장기 변수

두 번째 메가트렌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ALPS 처리수) 해양 방류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첫 방류 이래 2026년 4월까지 총 **19차**에 걸쳐 방류가 진행됐으며, 향후 약 30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현재까지 국내 해역에서 유의미한 방사능 농도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영향 없음'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성 세슘이 한국 동해에 도달하기까지 2~3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2026년경부터 본격적인 영향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방류 직전 우려됐던 '수산물 기피 현상'은 정부의 선제적 수매·소비 진작 대책, 수협의 수산물 홍보 캠페인, 그리고 소비자의 과학적 판단이 결합되면서 억제됐습니다. 정부는 2024년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80억 원**을 편성해 수산물 안전성 홍보와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협중앙회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 행사, 수산물 안전성 검증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변동은 수출 시장에 간접적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1-5. 스마트 양식과 지속가능 어업의 패러다임 전환

세 번째 메가트렌드는 스마트 수산과 ESG입니다. 정부는 '수산혁신 2030' 전략 하에 2030년까지 전체 양식장의 50%에 스마트양식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IoT 기반 수질관리 센서, AI 기반 사료공급 자동화, CCTV·비전시를 활용한 어체 생육 모니터링, 그리고 근해어선 2,700척에 탑재되는 AI 옵서버 시스템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전국 5개소가 조성되고 있으며, 대지당 약 **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입니다.

동시에 자원관리형 어업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 도입,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 등이 추진 중입니다.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량 **503만 톤** 회복, 연근해 어업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경남)울산수협 일반관리계

생산량 **100만 톤** 회복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어업인의 조업 규제를 강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자원을 회복시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입니다.

ESG 측면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저감, 친환경 어선·부표 전환, 어업인 복지·안전 강화가 핵심입니다. 수협은 2026년을 '어선 안전 원년의 해'로 선포하며 인명피해 감축, 어선 안전설비 보급, 어업인 재해보험 확대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수협 일반관리계 직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어업인 대상 안전 교육 지원, 재해보험 가입 업무,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 집행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산업 분석을 종합하면, 울산수협 지원자는 "수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구조 전환기에 놓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수출 30억 달러 돌파, 생산금액 10조 원 돌파, 스마트양식 확산이라는 성장 키워드와, 기후변화·오염수·자원 고갈이라는 리스크 키워드를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수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를 물을 때, 양적 지표 감소와 질적 지표 성장의 이중 구조, 그리고 울산 연근해에서 실제 진행되는 어종 전환(오징어 감소·방어 증가)을 구체적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면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수산업의 구조 전환기에 지역수협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주제로 삼아, 단순 금융업무를 넘어 어업인과 함께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파트너로서의 수협상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2장. 경쟁사 및 울산수협의 포지셔닝

2-1. 수협의 3층 구조와 독특한 제도적 위상

수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원조합(지역수협)-수협중앙회-Sh수협은행**이라는 3층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2016년 12월 사업구조개편(BIS 개편)으로 수협은행이 중앙회에서 분리·독립하면서, 중앙회는 어업인 지도·경제·공제사업에 집중하고, 수협은행은 독립 특수은행으로서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체제가 확립됐습니다. 이는 농협·농협은행의 2012년 신경분리 모델을 참고한 구조이지만, 수협은 자산·규모 면에서 농협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점에서 경쟁 환경이 다릅니다.

회원조합은 전국 **약 90개**(영업점 506개소)로 각각 독립 법인이며,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예금·대출·공제), 경제사업(위판·유통·유류공급), 지도사업(조합원 교육·복지)을 수행합니다. 회원조합은 다시 **업종조합**(대형 선망수협·근해채낚기수협 등 어업 업종 기반)과 **지역조합**(울산수협·부산시수협 등 지역 기반)으로 구분되며, 울산수협은 후자에 속합니다. 회원조합은 중앙회의 상급 감독을 받지만 독립 법인이므로 조합장 선출, 예산 편성, 인사 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협의 독특한 전산 특성으로, 수협은행과 회원조합이 동일한 공동망 코드(007)를 사용합니다. 이는 농협(은행 011, 조합 012)과 다른 점으로, 타 기관에서 조회 시 회원수협 거래도 수협은행으로 표시됩니다. 파트너뱅크 앱 하나로 수협은행과 회원조합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점포 수가 적은 수협의 약점을 보완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지만, 회원조합 입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를 수협은행과 공유해야 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2-2. 상호금융 업권 내 수협의 포지션

5대 상호금융기관(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내에서 수협의 위치는 4위권입니다. 농협이 총자산 **531조 원**으로 압도적 1위이고, 새마을금고(289조 원), 신협(151조 원)이 뒤를 잇습니다. 수협은 총자산 **47조 원**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경남)울산수협 일반관리계

로 4위, 산림조합(14조 원)이 5위입니다. 자산 규모만 보면 수협은 농협의 약 9% 수준으로, 조합 수(90여 개 대 농협 1,100여 개)와 조합원 수(약 16만 명 대 농협 210만 명)에서도 크게 뒤집니다.

그러나 수협은 질적으로는 독특한 포지션을 가집니다. 첫째, 어업인이라는 특수 고객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득의 계절성이 강하고, 고액 자산가는 적지만 수산물 판매대금·보조금·재해보험금 등 정기적 자금 유입이 있는 안정적 고객군입니다. 둘째, 수산업이라는 국가전략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 정부 보조사업·정책자금 집행의 창구 역할을 합니다. 셋째, 위판장·어항·유류공급시설 등 수산업 인프라를 직접 운영해 단순 금융기관을 넘어서는 지역 산업 플랫폼의 성격을 가집니다.

수협 상호금융은 예수금 중 정조합원(어업인) 비중이 5%에 불과하고 95%가 준조합원(일반인)인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어업인 전용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금융기관에 더 가깝습니다. 이는 수협이 어업인 지원이라는 사명과 준조합원 대상 일반 금융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태생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정일보 분석에 따르면 조합원 10명 중 8~9명이 비농어민 '준조합원'이어서 상호금융의 비과세 특례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2-3. 상호금융 건전성 약화라는 업권 전체의 위기

수협을 포함한 상호금융 업권 전체가 심각한 건전성 위기에 처해 있으며, 수협은 그중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수협 상호금융의 부실채권은 2021년 5,835억 원에서 2025년 8월 2조 8,885억 원으로 4년 만에 394.9% 폭증했으며, 연체율은 8.11%로 농협(5.07%), 산림조합(7.46%)을 크게 상회하는 업권 최악 수준입니다. 91개 회원조합 중 적자 조합 수가 2022년 4개에서 2024년 상반기 66개로 급증했고, 2024년 당기순이익은 △2,725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공동대출 부실입니다. 상호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 54.6조 원 중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29.97%에 달하는 상황이며, 이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려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에 부실이 집중되는 '부울경 쏠림' 현상이 뚜렷합니다. 이는 울산수협 지원자에게 직접적 함의를 가지는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지역 수협 여신 건전성에 직격탄이 되고 있으며, 신규 입사자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신 관리·부실채권 정리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20%에서 13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상호금융조합 최소 순자본비율을 총자산 대비 4%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은 저축은행 수준인 7%까지 단계적 상향이 예고됐습니다. 장기 미정리 PF 대출의 공시지가 적용,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총당금 상향 유예 건의 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흐름은 상호금융의 수익성을 단기적으로 악화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업권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2-4. 지역수협 간 비교와 울산수협의 상대적 위치

전국 90여 개 회원수협 사이에도 규모와 특성 차이가 큼니다. 인천수협(예금 1조 원 이상), 경기남부수협(9,500억 원 이상), 부산시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 등이 대형 수협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대도시 배후 지역이거나 고부가가치 양식(제주 넉치) 기반을 가진 조합들입니다. 통영수협·거제수협·여수수협 등 남해안 주요 어항을 낀 조합들도 위판 규모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반면 울산수협은 중소형급에 속합니다. 울산광역시 유일의 지역수협으로 관할 영역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지만, 관할 면적(1,062km²)과 어가 수(약 500~1,000가구 수준 추정)는 인근 부산시수협·통영수협에 비해 작습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경남)울산수협 일반관리계

그러나 울산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도시라는 특성이 있어, 준조합원 기반의 일반 금융사업에서 기회 요인을 가집니다. 즉, 어업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역 경제력이 탄탄해 상호금융 예수금 기반이 안정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1~6개월 내 수협 관련 주요 이슈로는 2026년을 '어선 안전 원년의 해'로 선포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메시지, 수협NPL대부·Sh수협자산운용 출범을 통한 금융그룹화 추진, 2030년 금융지주회사 출범 로드맵, 그리고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 강화(총당금 130%, 순자본비율 4%)가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방어진항 관광어항 전환 검토, 울산 고래문화특구 연계 수산관광 사업, 울산 연근해 어종 구성 변화(오징어 감소·방어 증가) 등이 진행 중입니다.

2-5. 면접 활용 포인트

면접에서 "수협과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차이"를 물으면, 자산 규모보다는 수산업이라는 특수 도메인 기반과 위판장·어항 인프라 운영이라는 점을 차별화 포인트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 지역수협인가"라는 질문에는 울산수협이 울산광역시 유일의 지역수협으로서 지역 수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공업도시와 어업 거점이라는 이중적 환경 속에서 금융과 경제사업을 결합할 수 있는 고유한 기회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금융 건전성 위기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언급하되, "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이야말로 신입 직원이 기본기를 쌓을 최적의 환경"이라는 관점으로 풀어내는 것이 성숙한 자세입니다.

제3장. 울산수협 심층 분석

3-1. 울산수협의 조직 개요와 지리적 정체성

울산수협(울산수산업협동조합)은 울산광역시를 관할하는 **유일한 지역수협**입니다. 본점은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114**에 위치하며, 경제사업팀은 남구 장생포로 324에서 운영됩니다. '(경남)'이라는 표기는 1997년 울산이 경상남도에서 광역시로 분리·승격된 이후에도, 수협중앙회 조직체계상 경남지역본부 소속으로 분류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울산광역시이지만, 수협 내부에서는 경남 소속으로 관리되는 이중적 행정 지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원자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면접에서 지원 대상 조합에 대한 기본 이해도를 검증 받을 때 차별화됩니다.

울산수협은 금융사업에서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방어진지점, 온산지점, 강동지점, 서생지점, 수암지점, 우정지점, 옥동지점, 달동지점, 병영지점, 동진지점, 문정동지점, 한남동지점** 등 12개 이상의 금융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울산 전역을 고루 커버하는 촘촘한 네트워크입니다. 경제사업 측면에서는 **울산공판장과 강동위판장**을 운영해 어획물 경매·정산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 조합장은 **오시환** 조합장으로, 2023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연임)되었으며, 당시 울산지역 수협 조합장선거 투표율은 79.0%를 기록해 지역 어업인의 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보여줬습니다.

3-2. 울산 지역 수산업의 인프라와 주요 품목

울산 지역 수산업의 핵심 거점은 **방어진항(동구)**입니다.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방어진항은 울산 연근해 어획물의 80% 이상이 거래되는 어업전진기지이며, 1996년 준공된 위판장(820평)과 면세유공급시설, 냉동·냉장시설, 어업인복지회관 등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방어진항은 일제강점기부터 조선업·수산업이 공존한 역사적 항구로, 현재는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인접해 있어 산업도시 울산의 이중적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경남)울산수협 일반관리계

이 외에도 **정자항**(북구)은 동해남부 주요 국가어항으로 강동위판장이 연계되어 운영되며, **장생포항**(남구)은 고래 문화특구로 관광 자원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주요 수산물인 오징어(감소 추세), 용가자미, 멸치, 방어, 송어, 농어, 감성돔, 도루묵 등 연근해 어획물과 자연산 돌미역(울산 특산), 전복 등 양식·채취 품목이 있습니다. 특히 **울산 자연산 돌미역**은 수협이 지역 브랜드로 육성해온 대표 특산품으로, 경북 울진·영덕 돌미역과 함께 동해안 돌미역의 주요 산지입니다.

울산 연근해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뚜렷한 변화는 **오징어의 급격한 감소와 방어의 증가**입니다. 과거 동해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대거 활동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현재는 오징어 어획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고 대신 방어·삼치 등 난류성 어종이 주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울산수협 경제사업의 품목 구성, 종매인 네트워크, 냉동·가공 시설 운영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3-3. 울산이라는 도시의 특수성이 만드는 기회

울산수협의 가장 독특한 특성은 **한국 최대 산업도시이면서 동시에 동해남부 어업 거점**이라는 이중적 환경에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에너지, S-OIL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울산은 2024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 **8,519만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탄탄합니다. 울산의 총생산 성장률도 전국 2위 수준으로, '산업수도'의 저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경은 울산수협 상호금융 사업에 세 가지 기회 요인을 제공합니다. 첫째, **준조합원(비어업인) 고객 기반이 풍부**합니다. 대기업·협력업체 근로자, 자영업자, 고령 은퇴자 등 안정적 소득을 가진 잠재 고객이 많아, 어업인 규모가 작음에도 상호금융 예수금 기반이 두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울산시·지자체 정책 수요**가 큼니다. 울산시는 수산진흥 예산을 꾸준히 편성하고 있으며, 수산물 이력제·스마트양식·수산물관광 등 신사업 예산의 집행 창구로 수협이 활용됩니다. 셋째, **수산관광 융합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방어진 관광어항화, 정자항 활성화 등 울산시가 추진하는 해양관광 프로젝트와 수협의 수산물 유통·판매 기능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

3-4. 구조적 리스크 요인들

기회 요인이 뚜렷한 만큼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산업화의 환경 부담**입니다.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공업화와 해안 매립, 임해공단 조성은 연안어장 환경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울산 연안은 산업단지 배수·선박 운항·매립 등의 영향으로 어장 생산성이 타 지역 대비 낮을 수 있으며, 이는 위판량의 구조적 한계로 이어집니다.

둘째, **어업인 고령화와 감소**입니다. 전국적으로 어가 인구는 2012년 15.3만 명에서 2024년 8.4만 명으로 45% 감소했으며, 울산도 유사한 추세를 보입니다. 60~70대 이상 고령 어업인의 비중이 높아 향후 10년 내 상당수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협의 정조합원 기반 축소라는 중대한 구조적 위협입니다.

셋째, **인프라 노후화**입니다. 방어진위판장, 면세유시설, 냉동·냉장시설 등 울산수협의 주요 인프라는 대부분 1996~1998년에 준공된 것으로, 현재 약 3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화·재투자가 시급하지만, 상호금융 수익성 악화 국면에서 대규모 투자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넷째, **상호금융 건전성 리스크**입니다. 부울경 지역에 집중된 부동산 PF 부실이 울산 지역수협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울산 부동산 시장은 2022년 고점 이후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담보물 가치 하락과 연체율 상승의 이중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5. 울산수협의 중장기 전략 방향 추론

공식 중장기 전략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수협중앙회의 방향과 울산의 특성을 결합해 추론하면 다음과 같은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경남)울산수협 일반관리계

방향성이 유추됩니다. 첫째, **지역 특화 수산물 브랜드 강화**입니다. 울산 자연산 돌미역, 방어, 고래문화 연계 수산물 등을 울산수협 공동브랜드로 강화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둘째, **준조합원 기반 상호금융 확대**입니다. 울산의 탄탄한 일반 금융 수요를 활용해 예금·대출·공제·카드 사업을 확대하고, 파트너뱅크 앱을 통한 디지털 채널 강화가 예상됩니다. 셋째, **수산업·관광·복합시설 사업 참여**입니다. 방어진항 관광어항화, 장생포 고래문화 연계, 정자항 개발 등에서 수협이 수산물 유통·체험·판매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그림입니다. 넷째, **어업인 안전·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어선 안전 원년의 해' 기조에 맞춰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안전교육, 재해 예방 사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3-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자기소개서에서 울산수협을 지원하는 이유를 서술할 때는, "공업도시와 어업 거점이 공존하는 울산의 이중적 특성 속에서, 지역수협이 수행해야 할 고유한 역할"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어업인 감소·고령화에 대응하는 어가 경영 지원, (2) 준조합원 기반을 활용한 지역 밀착 금융, (3) 수산업·관광·지역 산업 융합의 플랫폼 역할 세 가지를 연결하는 서사가 바람직합니다. 면접에서는 방어진항·장생포항·정자항 등 주요 어항의 이름, 울산 자연산 돌미역 등 특산품, 조합장 이름, 관할 지점 구조 등 기본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원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4장. 인재상·조직 문화·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4-1. 수협의 공식 인재상: 3C(SEA)

수협중앙회는 '강한 수협, 돈 되는 수산'이라는 비전 아래 **3C(SEA) 인재상**을 공식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Consideration(친절·배려)은 "고객을 섬기는 따뜻한 가슴으로 고객 행복에 앞장서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는 어업인·조합원·일반 고객을 대면하는 지역수협 업무의 본질을 반영한 키워드로, 단순한 친절을 넘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Cooperation(협동·소통)은 "동료와 팀워크를 발휘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람,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수협이라는 조직 명칭 자체에 '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듯, 협동과 소통은 수협의 DNA입니다. 특히 지역수협은 10~50명 규모의 소조직이 많아, 동료 간 협업과 조합원과의 소통이 업무 성공의 핵심 축입니다.

세 번째 Creativity(창의·혁신)은 "번뜩이는 생각과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 나가는 사람, 유연한 자세로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기후변화·디지털 전환·ESG 등 산업 전반의 변화 속에서 수협도 스마트양식, 디지털뱅킹, 금융지주 전환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다만 지역수협 현장에서는 '파괴적 혁신'보다는 '점진적 개선'의 창의성이 더 환영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4-2. 지역수협 현장에서 실제로 선호하는 인재 특성

공식 인재상은 추상적이므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선호되는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직자 후기·채용 후기·지역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다섯 가지 핵심 특성이 도출됩니다.

첫째, 지역 밀착성입니다. 지역수협은 해당 지역 거주자·출신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는 차별이러기보다, 어업인·고령 조합원과 장기적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면 지역 이해도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적 이유에 기반함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경남)울산수협 일반관리계

니다. 울산 출신이 아니더라도 울산에 정착할 의지, 울산 수산업에 대한 구체적 이해, 지역 방언·문화에 대한 친숙도 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면 응대력입니다. 수협 고객의 상당수는 고령의 어업인·조합원으로, 디지털 채널보다 대면 창구를 선호하며 감정적 소통을 중시합니다. 시중은행의 표준화된 응대와는 다른, 따뜻하고 참을성 있는 인간적 친화력이 요구됩니다. "할머니·할아버지 고객에게도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수협이 원하는 인재상의 핵심입니다.

셋째, 멀티태스킹 역량입니다. 지역수협은 소규모 인원(한 지점당 5~15명 수준)으로 총무·금융·경제·보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므로, 한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여러 업무를 신속히 익히고 유연하게 전환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창구에서 예금 접수하다가 내일 위판장에서 정산 지원하고 다음 주 조합원 총회를 준비하는" 업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넷째, 기본적인 금융·회계 지식입니다. 전공 제한은 없으나 상호금융 창구 업무에 투입되므로 예금·대출·공제 상품의 기본 이해, 전산 시스템 조작, 회계·결산에 대한 기초 소양이 필요합니다. 금융권 자격증(은행FP, 여신심사역 등)이 필수는 아니지만, 금융에 대한 학습 의지와 기본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다섯째, 수산업·지역산업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안정적 직장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업과 어업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수산업의 구조적 어려움, 어업인 고령화, 기후변화 영향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면 업무에서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4-3. 지역수협 조직문화의 현실

지역수협 근무는 독특한 특수성을 갖습니다. 준공공단체로서의 **고용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며, "수산업은 국가가 보호하니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현직자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정년 보장과 퇴직연금,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안정적이며, 워라벨 측면에서도 주5일 근무와 정시 퇴근이 비교적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승진체계는 **사원(4급·3급, 7년) → 과장(2급, 5년) → 팀장(1급, 5년) → 부장(별급)** 순이며, 지역수협은 조합 내에서만 순환보직이 이루어져 타 지역 수협으로의 이동은 없습니다. 이는 평생 울산에서 일할 각오가 된 사람에게만 안정적 장점이지만, 지역을 옮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제약입니다.

반면 **선출직 조합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민간 기업과 크게 다른 특성입니다. 조합장은 4년 임기의 선출직으로, 조합원 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이는 정치적 성격이 일부 개입될 수 있고, 조합장 교체 시 조직 분위기·인사·사업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규모 조직의 폐쇄성, 지역사회와의 과도한 밀착, 친인척·인맥 네트워크의 영향 등도 도전적 요소로 지적됩니다.

연봉 수준은 조합별 재무 상태에 따라 상이하나, 지역수협 초봉은 중앙회·수협은행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협중앙회 평균 연봉이 약 **6,512만 원**, 수협은행이 약 **8,962만 원** 수준인 반면, 지역수협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근무임을 고려하면 실질 구매력은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4-4. 채용의 투명성과 변화

수협중앙회가 2014년부터 회원조합 채용을 위탁 운영(서류·필기 전형)하면서 채용의 투명성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과거 지역수협 채용은 조합장 재량이 컸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현재는 수협중앙회 주관의 공개채용으로 공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직업기초능력, 경영·경제·회계 등 직무지식, 수산업 이해 관련 문항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본 리포트는 매 시즌 변동이 큰 전형 단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경남)울산수협 일반관리계

계·일정·면접 형식에 대해서는 구체적 예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4-5. 면접 활용 포인트

인재상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3C(SEA)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3C 키워드로 재해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경험을 Consideration의 사례로, 소규모 팀 프로젝트 리딩 경험을 Cooperation의 사례로, 신규 서비스·시스템 제안 경험을 Creativity의 사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정착 계획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산업의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동정적 시각이 아닌 구조적 이해와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5장. 일반관리계 직무 분석

5-1. 직무의 정의와 구분

지역수협 직원은 **일반관리계·기술계·기능계**로 구분됩니다. 일반관리계는 사무분야 전반에 종사하는 일반직으로, 지역수협의 핵심 인력이자 가장 채용 규모가 큰 직군입니다. 기술계는 위판장 경매·수산물 품질관리·어선 안전 관련 기술 업무를, 기능계는 시설·차량·경비 등 기능 업무를 담당합니다.

일반관리계는 단일 업무가 아니라 총무·지도·상호금융·공제·경제사업을 아우르는 **복합 사무직**입니다. 소규모 조직 특성상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넘나드는 멀티태스킹이 필수이며,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부서와 지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입은 대부분 영업점(상호금융 지점)으로 배치되어 창구 업무부터 시작하며, 경력이 쌓이면 경제사업부·총무·기획 관리 업무로 순환됩니다.

5-2. 다섯 가지 핵심 업무 영역

첫째, 총무과 업무는 조합의 살림을 운영하는 관리 업무입니다. 인사·급여 관리, 예산 편성·집행, 회계·결산, 자산·시설 관리, 전산 시스템 관리, 각종 계약·조달 업무가 포함됩니다. 특히 연말 결산과 이사회·총회 준비는 총무팀의 가장 중요한 연례 업무로, 이때는 야근이 빈번합니다.

둘째, 지도사업은 수협 고유의 공익적 기능입니다. 조합원(어업인) 가입·탈퇴 관리,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운영, 정부·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수산직불제·어선안전조업·어업인 교육 등), 어업인 복지 지원(자녀 학자금·건강검진 등), 어업인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지도사업은 직접적 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수협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 축이며 정부 정책자금의 집행 창구 역할을 합니다.

셋째, 상호금융사업은 가장 비중이 큰 업무로, 수협 수익의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예금 수납·해지, 대출 상담·실행, 카드 발급·관리,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안내, 자동이체·자동납부 설정, 공과금·세금 수납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여신 업무에서는 개인 신용대출, 담보대출, 어업인 정책자금 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며, 연체 관리와 채권 회수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넷째, 공제보험사업은 수협공제 상품(어선원재해보상보험, 어선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생명공제 등)의 가입 처리와 보험금 청구 접수를 대리 수행합니다. 공제는 어업인 안전·복지의 핵심 수단이며, 정부 지원 보험(어선원재해보상보험 등)의 집행 창구이기도 합니다. 공제 실적은 지점·직원 KPI의 중요한 축입니다.

다섯째, 경제사업은 수협의 핵심 고유사업으로, 여타 금융기관과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위판장에서 어획물 경매·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경남)울산수협 일반관리계

정산, 선수물자(그물·어구·얼음 등) 공급, 면세유류 공급, 바다마트·수산물판매장 운영, 수산물 가공·유통 사업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경제사업은 수익성은 낮지만 어업인의 실질적 경영 지원이라는 수협 본연의 사명을 구현하는 영역입니다.

5-3. 일·월·연 단위 업무 사이클

일 단위로 보면, 상호금융 배치 시에는 오전 8시 30분경 개점 준비(시재금 점검, 전산 로그인, 공문 확인)를 시작해 9시 개점 후 고객 응대(예금·대출·공제·카드)가 오후 4시까지 이어지고, 마감 정산(시재 점검, 일계표 작성, 전산 마감)을 거쳐 오후 5~6시경 퇴근하는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위판장 배치 시에는 새벽 4~5시경 출근해 어획물 입하 확인, 종매인 소집, 경매 진행(통상 오전 6~8시), 낙찰가 확정, 정산서 작성, 어민 대금 지급이 오전 중에 이루어지며, 오후에는 전산 입력·수수료 정산·거래처 관리 등 후속 업무가 진행됩니다.

월 단위로는 상호금융 실적 집계, 경제사업 매출 집계, 급여 정산, 월말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각종 캠페인(예금 유치, 카드 발급, 공제 가입)이 월 단위로 운영되며, 실적 평가도 월 단위로 집계됩니다.

분기·반기에는 결산보고, 경영공시 자료 작성, 중앙회 보고가 추가됩니다.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경영실적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며, 부진 조합에 대해서는 경영지도·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연 단위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정기총회(통상 2~3월)와 대의원회의 준비·운영, 연말 결산(회계연도 마감), 수협 중앙회 감사 대응,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 마감·정산입니다. 총회 시즌에는 총무팀·지도팀이 총력전을 벌이며, 안건 준비·회의록 작성·의결사항 집행 등 업무가 폭증합니다.

5-4. 어기(漁期)에 따른 업무 변동

지역수협 업무의 가장 독특한 특성은 **어기에 따른 계절성**입니다. 울산의 경우 봄(3~5월)에는 가자미·돌미역, 여름(6~8월)에는 멸치·문어·갈치, 가을(9~11월)에는 오징어(감소)·방어·삼치, 겨울(12~2월)에는 대게·도루묵·과메기가 주력 품목입니다. 어획 성수기에는 위판장이 폭주하고, 비수기에는 시설 정비·보조사업 집행·교육에 집중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또한 **재해 대응**도 주요 업무입니다. 여름철 태풍, 겨울철 한파, 수시 발생하는 고수온·적조·해파리 피해 등이 있을 때는 피해 조사, 재해보험 청구, 긴급 정책자금 집행 등 비정기 업무가 폭증합니다. 2024년 고수온 피해액이 1,430억 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재해 대응은 단순한 예외 업무가 아니라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핵심 업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5. 내부·외부 이해관계자 지형도

일반관리계가 상대하는 이해관계자는 넓고 다층적입니다. **내부 이해관계자**로는 조합원(어업인), 조합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 대의원,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수협중앙회 본부 각 사업단, Sh수협은행 영업본부가 있습니다. 조합원은 수협의 '주인'이자 최대 고객으로, 이들과의 신뢰 관계가 직무 수행의 핵심축입니다. 조합장은 선출직이므로 정치적 역학이 작용할 수 있고, 대의원회의는 주요 의사결정 기구이므로 대의원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로는 울산광역시(수산진흥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금융감독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산물공단지원공단, 해양수산개발원(KMI), 지역 상공회의소, 수산물 유통 바이어(종매인), 수협공제상품 가입자, 일반 금융 고객, 언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울산시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데, 시의 수산진흥 예산이 수협을 통해 집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6. 필요 역량: 기술·지식·소프트스킬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경남)울산수협 일반관리계

기술적 역량으로는 상호금융 전산 시스템 조작 능력, MS Office(특히 Excel) 활용 능력, 회계·결산 실무 능력이 기본입니다. 자격증은 필수는 아니나, 컴퓨터활용능력, 한국사능력검정, 금융 관련 자격(은행FP,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이 가산점 요소가 됩니다.

지식적 역량으로는 금융·회계 기초지식,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대한 이해, 수산업 구조와 현황에 대한 이해, 울산 지역 경제·수산업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특히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협 업무의 법적 근거이므로, 주요 조항을 이해하고 있으면 업무 적응이 빠릅니다.

소프트스킬로는 고령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응대력, 참을성과 감정 조절, 소규모 조직에서의 협업 능력, 다 업무 병행 능력,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존중,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중요합니다. 공직자는 아니지만 준공공직 성격이 강하므로, 금품수수·업무상 비밀 누설·이해상충 등 윤리 이슈에 민감해야 합니다.

5-7. KPI와 평가 포인트

KPI는 부서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축으로 구성됩니다. **상호금융 실적**(예금 유치액, 대출 실행액, 카드 가입 건수, 인터넷뱅킹 가입 건수), **공제보험 실적**(신규 가입 건수, 갱신률, 보험료 징금률), **경제사업 매출**(위판 물량·금액, 유류 공급량, 판매장 매출), **내부 관리 지표**(결산 정확도, 감사 지적사항 최소화, 조합 당기순이익 달성), **여신 건전성 지표**(연체율, 부실채권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률)가 주요 축입니다.

현재 상호금융 건전성 위기 상황에서는 여신관리 강화, 연체율 관리, 부실채권 정리 관련 지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PF 대출 부실이 집중된 상황에서 **건전성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가 실적 지표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5-8. 대표 업무 시나리오

신입 일반관리계 직원의 1년차 가상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직후 3~6개월은 신입 연수(수협중앙회 주관 집합교육)와 지점 OJT를 병행합니다. 7~12개월은 방어진지점 또는 본점 영업부에서 상호금융 창구 업무를 본격 담당하며, 예금 접수·공과금 수납·카드 발급 등 기본 업무를 익힙니다. 1년차 말~2년차에는 대출 업무에 투입되어 개인 신용대출 상담·심사를 경험하고, 2~3년차에는 위판장·경제사업팀·총무팀 등으로 순환 배치되어 수협 전반의 업무를 익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겪게 될 상황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새벽 위판장에서 고령 어업인과 대면해 정산서를 작성하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재해보험 청구를 도우며, 고령 조합원이 창구에서 오랜 시간 상담을 요청하는 상황에 차분히 대응하고, 월말 마감에 시재가 맞지 않아 동료와 함께 원인을 추적하는 경험 등이 축적됩니다. 이는 시중은행 신입 행원의 경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지역 산업과 밀착된 경험이라는 독특한 자산이 됩니다.

5-9. 면접 활용 포인트

직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일반관리계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무 업무"라고 답하지 말고, 총무·지도·상호금융·공제·경제 다섯 영역을 언급하며 각각의 구체적 업무 예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위판장 경매·정산, 면세유 공급,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등 수협 고유의 업무를 언급하면 차별화됩니다.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특정 부서를 고집하기보다, "신입 시기에는 상호금융 창구에서 기본기를 쌓고, 중장기적으로는 울산 수산업 현장을 잘 이해하는 경제사업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식의 단계적 성장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경남)울산수협 일반관리계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2024년 수산물생산량 집
계 —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0771&listUpdtDt=2025-02-21++10:00&menuSeq=971&bbsSeq=10>
2. KDI 경제정책자료 - 2024년 수산물생산량 분
석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4049>
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2024년 수산식품 수출 30억불 들
파 —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0031&bbsSeq=10&menuSeq=971>
4. 농민신문 - K-수산식품 역대 최대 실적(김 수출 1
위)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115500365>
5. 미주한국일보 - K-김 수출 역대 최대 — <http://la.koreatimes.com/article/20251214/1593119>
6. FAO SOFIA 2024 - 글로벌 수산·양식 생산 통
계 — <https://openknowledge.fao.org/server/api/core/bitstreams/66538eba-9c85-4504-8438-c1cf0a0a3903/content/sofia/2024/world-fisheries-aquaculture-production.html>
7. 한국경제 - 한국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세계 1
위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702122100i>
8. 국제신문 - 수산물 소비 세계 1위, 그 후를 경계한
다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50224.22021006705>
9. 현대해양 - 연근해 수은 상승과 수산업 재앙 경
고 — <https://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80>
10. 한국수산경제 - 수은 상승 등 기후변화 영
향 — <http://t633.ndsof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856>
11. 이콘명글 - 수산업 위기와 단골 반찬 변화 — <https://econmingle.com/economy/fishing-industry-crisis/>
12. Disappearth - 후쿠시마 오염수 2년, 2026년이 중요 — <https://disappearth.org/2025112501/>
13. KBC 뉴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수산물 소
비 —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408210004>
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정
보 —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List.do?pkgId=49500796&pkgSubId=25000136>
15. 해양수산부 - 디지털·친환경 해양 2030 비
전 —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37036&menuSeq=971&bbsSeq=>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경남)울산수협 일반관리계

10

16. 현대해양 - 스마트화되는 바다산
업 — <https://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7>
17. 정보통신신문 - 해양산업 스마트화 성장동
력 —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283>
18. 해양수산부 - 2028년까지 모든 어선 TAC 적
용 —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512>
19. 나무위키 - Sh수협은
행 — <https://namu.wiki/w/Sh%EC%88%98%ED%98%91%EC%9D%80%ED%96%89>
20. 나무위키 - 수산업협동조
합 — <https://namu.wiki/w/%EC%88%98%EC%82%B0%EC%97%85%ED%98%91%EB%8F%99%EC%A1%B0%ED%95%A9>
21. 굿모닝경제 - 수협 상호금융 부실채권 394.9% 폭증, 연체율
8.11% —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101>
22. 포춘코리아 - 상호금융 당치는 커졌으나 관리 허
술 — <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25>
23. 글로벌이코노믹 - 상호금융 PF 부실 '도미노' — https://www.g-eneews.com/article/Finance/2025/10/202510101705008573e30fcb1ba8_1
24. 헤럴드경제 - 부·울·경 상호금융 PF 건전성 경고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18327>
25. 서울경제 - 상호금융 당기순이익 48% 감소, 연체율
4.54%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QBWZ7QEL>
26. 금융위원회 -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 입법예
고 — <https://fsc.go.kr/po040301/view?curPage=¬iceId=4035&srchBeginDt=&srchEndDt=&srchKey=&srchText=>
27. EBN - 상호금융 장기 미정리 PF 공시지가 적
용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1257>
28. 울산수협 공식 홈페이지 — http://www.us-suhyup.co.kr/default/menu01/menu01_cont06_03.php?sub=1603
29. 경상일보 - 울산 조합장선거 투표율
79%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3720>
30. 한국농어민신문 - 울산수협 소
개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46>
31. 울산광역시 수산현황 및 여

심층 분석 보고서: 수협-(경남)울산수협 일반관리계

- 건 — <https://www.ulsan.go.kr/u/economy/contents.ulsan?mld=001010001000000000>
32. 어업인수산 - 울산 방어진항 어업전진기
지 —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83>
33. 울산매일 - 울산 총생산 성장률 전국 2
위 —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730>
34. 블라인드 - 수협 지역수협 현직자 후
기 — <https://www.teamblind.com/kr/post/%EC%88%98%ED%98%91-%ED%98%95%EB%93%A4-%EB%8F%84%EC%99%80%EC%A4%98-Et5DtWiY>
35. 어업인수산 - 수협중앙회 미래 인재상 재정
립 —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70>
36. 수협중앙회 공식 인재상 — <https://www.suhyup.co.kr/suhyup/219/subview.do>
37. 잡코리아 - 수협중앙회 자소서 항목 — <https://www.jobkorea.co.kr/company/1737898/keyword>
38. 링크리어 - 수협 25년도 상반기 채용공고 — <https://linkareer.com/activity/239543>
39. 세정일보 -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특례 분
석 —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66>
40. 현대해양 - 해수부 잘못된 통계 활용 논
란 — <https://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06>